

훈련 X III.

속사람의 훈련이 없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 사역의 본 - 예수그리스도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3: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본'이 되신다. 요한복음 13:15절에 보니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본을 보여주셨다 (example).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결국 신앙의 승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다. 사역은 바로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다. 사역자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늘의 능력을 담아낼 그릇 - 속사람

'인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구체적 행동의 지침이 된다. 성경에 예수님은 친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표현된다.

하늘의 엄청난 능력을 담아낼 예수님이라는 그릇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하늘의 능력을 담아낼 마음, 즉 속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능력은 '속사람'에 담겨진다. 에베소서 3:16에 보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고 말씀하신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건함, 새로움)

3. 속사람 - 내면의 상태와 됨됨이 (구체적으로 마음과 정신)

결국, '내면의 됨됨이'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는 정렬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어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역대상 28:9]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예레미야 11:20]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며 진심의 말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경작’하라고 말한다. 속사람을 성장시키라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속사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시기 때문이다.

4. 속사람을 경작해야 하는 이유 (생각과 마음을 경작)

마음을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신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함’의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사람이 혼과 육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이 질서있게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죄로 가득찬 세상의 특징은 ‘무질서’이다. 정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세상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이다 (무질서, 혼돈, 어두움, 공허함이 가득한 삶). 성경에 보니 이런 무질서한 상태가 모든 사람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울증)

[누가복음 21:34-35]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틈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the anxiet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close on you unexpectedly like a trap.(NIV)

35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말씀을 보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상태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현대병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다.

* **우울증(憂鬱症, 영어: depression)**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며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위키백과

: 우울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신질환,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집중도 잘 안되고, 매사에 흥미나 의욕이 없는 증상과,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우울증은 심리학적, 사회적, 생물학적, 신체적 원인에 의한 복합적 질병이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하고,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아담은 범죄 이후에 위와같은 무질서한 상태, 즉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를 경험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피폐함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발생한다.

보여지는 겉사람에는 안정감이 없다. 멀쩡해 보였던 많은 지도자들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충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속사람의 연단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력과 힘’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파멸로 이끈다.

5. 자기부인의 '본'이 되신 예수님

제대로 된 신앙은 '능력'에 기초하지 않는다. 보여지는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다. 신앙은 영적인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신다.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그릇은 온전히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담아 낼 수 없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마가복음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의 소욕(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부인'의 훈련이다. 이에 대한 예를 주님이 보이셨다.

(1)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5-8]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부인'의 본을 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내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2)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

[빌립보서 2:9-10]

-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철저하게 높아진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자기부인의 '본'의 결과는 놀랍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을 받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앞에 무릎을 꿇는다.

6.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처럼 하늘의 뜻에 나의 속사람이 구체적으로 '겸손과 온유함'의 태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7. 계시와 갈망

이런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받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갈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완전히 매료되어야 한다. 그래야 훈련할 수 있다. 온전한 속사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 분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구하라. 이 사람이 오래 사역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